

극악의 변동성과 반도체가 아니면 주식이 아닌??

# 삼성전자 & SK하이닉스의 질주, 어디까지?

# 반도체의 질주

- 글로벌 시가총액 메모리 업체 급상승
- 글로벌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가장 밸류 싼
- 시총 상위 기업이 돈을 지출하여 반도체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

글로벌 시총 상위 30위 중 15위 기업 ('26. 6. 12 기준)

| 순위 | 기업명      | 산업   | 시가총액    | 26F OP | 27F OP | 26F OPM | 27F OPM | 26F PER(X) | 27F PER(X) |
|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 | 엔비디아     | Tech | 4,957.9 | 246.3  | 360.9  | 65.7    | 65.7    | 43.7       | 22.9       |
| 2  | 알파벳      | Tech | 4,348.5 | 170.0  | 206.6  | 34.2    | 35.0    | 25.1       | 23.5       |
| 3  | 애플       | Tech | 4,342.0 | 156.7  | 170.3  | 33.8    | 34.5    | 33.7       | 30.6       |
| 4  | 마이크로소프트  | Tech | 2,899.6 | 163.3  | 194.7  | 46.3    | 45.6    | 22.8       | 20.0       |
| 5  | 아마존닷컴    | Tech | 2,597.9 | 103.8  | 130.9  | 12.8    | 14.0    | 23.4       | 20.8       |
| 6  | TSMC     | Tech | 1,892.1 | 94.0   | 118.2  | 56.5    | 57.1    | 23.5       | 18.7       |
| 7  | 브로드컴     | Tech | 1,834.4 | 78.4   | 123.8  | 52.4    | 55.6    | 33.3       | 20.0       |
| 8  | 아람코      | 에너지  | 1,752.0 | 245.2  | 236.3  | 48.7    | 55.3    | 13.9       | 14.4       |
| 9  | 테슬라      | Tech | 1,499.1 | 5.6    | 8.1    | 5.9     | 7.9     | 213.1      | 164.1      |
| 10 | 메타       | Tech | 1,442.9 | 90.6   | 105.1  | 34.0    | 34.7    | 16.1       | 14.8       |
| 11 | 삼성전자     | Tech | 1,247.1 | 227.1  | 311.4  | 54.2    | 54.6    | 7.4        | 5.4        |
| 12 | 마이크론     | Tech | 1,123.1 | 114.7  | 162.3  | 77.5    | 77.7    | 16.3       | 8.9        |
| 13 | 일라이 릴리   | 헬스케어 | 1,093.3 | 39.8   | 48.5   | 47.4    | 37.5    | 32.0       | 26.2       |
| 14 | 버크셔 해서웨이 | 금융   | 1,046.7 | 18.0   | -      | 4.6     | -       | 25.0       | 24.0       |
| 15 | SK 하이닉스  | Tech | 1,027.0 | 165.9  | 240.3  | 78.0    | 77.1    | 7.4        | 5.2        |

주: 시가총액 단위는 십억달러(USD), 영업이익(OP) 및 OPM/PER 등은 컨센서스 기준  
 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# 시장의 극단적 쏠림

-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
- 실제 현금 창출 능력 우선 평가

자본 집중도 분면 진단 (Capital Concentration Matrix)



## 01 5월의 변곡점 (The Turning Point)

기존 시장을 견인하던 **전력 인프라 및 바이오 섹터**에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갔습니다. 이는 단기간에 실질적 장부상 영업 현금을 입증하지 못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한 결과입니다.

## 02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(Capital Fligh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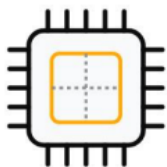
불안정한 매크로 하에서, 막대한 현금 창출력을 입증하는 **최상단 반도체 대형주**와 견고한 주주 환원 및 연일 사상 최대 이익을 증명해 내는 **메이저 금융주**로만 자본이 극단적으로 함축되고 있습니다.

## 03 진단 결과 (Key Insight)

현 장세는 사이클 중후반부의 전형적인 마켓 브레스(Market Breadth) 축소 국면입니다. 평균 자본비용(WACC)이 높은 시장 국면에서는 오직 **"가장 확실한 현금 흐름을 증명해 낸 소수"**만이 포트폴리오를 방어합니다.

# 마이크론 실적발표: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, '산업 구조 변화'의 선언

- 반도체가 명품 브랜드의 마진을 기록하다



매출 **446%** 증가

(전년 동기 대비, 분기 사상 최대 415억 달러 / 약 57조 원)

=



영업이익률 **81.2%**

(매출 총이익률 84.9%)

데이터 센터  
마진 분해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클라우드 메모리 | 83% |
| 코어 데이터센터 | 87% |
| 모바일      | 87% |
| 자동차      | 79% |

결론: 전 사업부 80% 전후의 비정상적 수익성 확보

“

"메모리 산업은 AI 확산에 의해 구조적으로 변형되었다. 메모리의 역할이 AI 시대의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되었다."

— Sanjay Mehrotra, Micron CEO

# 마이크론 실적발표: 원자재에서 전략자산으로

- 메모리 반도체 판매모델이 단순 스팟 거래에서 장기 강제 계약 체결 구조로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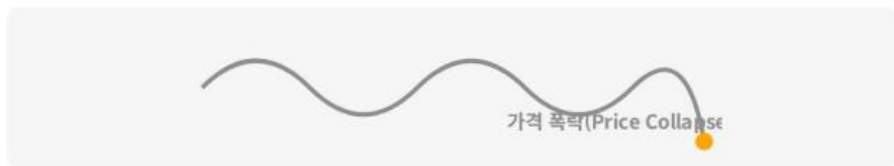
## 🕒 과거의 사이클

### 비즈니스 모델: 단순 거래(분식집)

그날그날의 단기 단가와 시장 수요에 철저히 의존하며, 불안정한 장기 계약 체계를 노출함.

### 구조적 특징: 가격 급락 악순환

가격 상승 시 무분별한 과잉 공급이 개시되며, 급격한 재고 누적으로 전형적인 메모리 다운사이클의 직격탄을 맞음.



## 🛡️ 새로운 구조 (SCA)

### 비즈니스 모델: 장기 임대업 구조 변형

업계 최고 핵심 16개 대형 빅테크 고객사들과 5년 만기의 강력한 전략적 고객 계약 (SCA) 전격 성사.

### 구조적 특징: Take-or-Pay 강제 조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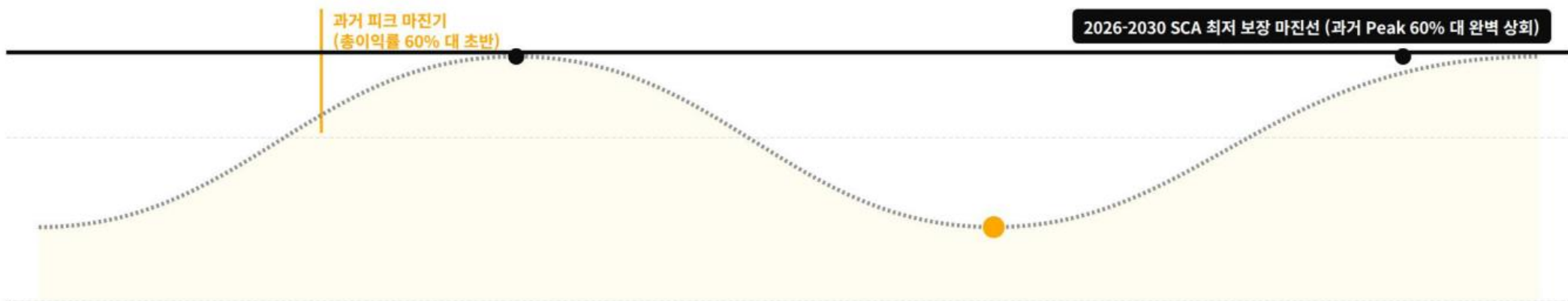
고객사가 사든 안 사든 무조건 대금을 지불하도록 명문화된 강제 패널티 조항으로, 하방 가격 리스크를 완벽 봉쇄함.



인사이트: 메모리 산업 최대 약점이었던 '수요 불확실성'이 장기 강제 조항 계약을 바탕으로 완벽히 제거

# 마이크론 실적발표: 바닥이 과거의 천장을 뚫다

- SCA 최저 보장마진 계약이 최악의 불황기에도 과거 전성기 이상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듦



확정 누적 매출

**\$100B (138조원)** 수주 안심 버퍼 확보

현금 예치금 (Deposit)

**\$18B (25조원)** 고객사의 선지불 금융안정화

물량 잠금 체결

**DRAM 20% /  
NAND 30%**

향후 50%까지  
확대 계획

인사이트: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마켓 구조 자체가 폐쇄. 메모리사이클 특유의 '깊은 골짜기'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전망

# 마이크론 실적발표: 빅테크의 천문학적 사채발행 ‘빚 vs 전략적 선점’

- 구글, 오라클, 스페이스X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유례없는 초대형 규모 회사채 발행의 속사정은

## ▲ 과거의 오판 (Perspective 1)

### "2000년 닷컴버블의 오판 재현인가?"

당시 시스코(Cisco), 루슨트 테크놀로지처럼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단 짓고 보자는 형태의 무모한 과잉 부채 투자의 고점 징후가 아닌가 우려 섞인 시선이 공존합니다.

— 시장의 우려와 회의론

## ● 현재의 진실 (Perspective 2)

### "전략적 공급망 록인(Lock-in)"

자본은 유한하지만 주도권 쟁취 기회는 한시적입니다. 수요가 공급을 완벽히 압도하는 정국에서, 미래의 현금흐름을 앞당겨 GPU, 메모리, 데이터센터 부지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 독점을 목표로 한 승부수입니다.

— 확실성 높은 소수를 향한 극단적 자본 집중

인사이트: 대형 테크사들의 사채 발행은 단순 부채 리스크가 아닌, **AI인프라 물리 자산 및 공급망 선점**을 위한 확실한 투자 행동

# 마이크론 실적발표: 수요의 다층화

- 특정 한 개 수요 기동의 침체가 산업 붕괴로 이어지던 구조를 벗어나 튼튼한 하이브리드 수요층 확보

Hyperscalers (빅테크 4사)

Sovereign AI & Specialized Cloud

Enterprise (일반 기업용 자체 서버)

1

**Hyperscalers (빅테크 상위 4대 공통)**

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아마존, 메타의 마르지 않는 초거대 자본 중심 지속적 AI인프라 무한 확장

2

**Sovereign AI & Specialized Cloud**

사우디, UAE 등 국가 보안 중심 안보 인프라 및 코어워브, 람다 등 AI 전문 서드파티 클라우드의 가세

3

**Enterprise (일반 중대형 기업용 서버)**

스노우플레이크, 데이터브릭스 등 빅데이터 연합의 실무 환경 적용으로, 기존 전출망 성장치 폭등

인사이트: 단일 축(PC, 스마트폰)이 꺾이면 속절없이 추락하던 과거와 달리, **5개의 독립적 견인 축**이 서로를 지탱하는 완벽한 분산 구조

# 마이크론 실적발표: 데이터센터 너머의 메가트렌드, ‘피지컬 AI’

- AI 브레인이 마침내 클라우드 서버를 벗어나 현실 공간의 하드웨어와 ‘합체’



[1x] 기준

## 일반 내연 기관 자동차

전통적인 전자제어 중심 설계로 최소 수준의 저사양 컨트롤러용 저대역 메모리 탑재가 기준점입니다.



[5x] 증가

## L2+ 고도 자율주행차

센서 데이터의 초고속 실시간 정렬 및 연산을 위해 일반 세단 차량 대비 무려 **5배에 달하는 초고속 대용량 메모리**를 사용합니다. 2030년 시장 전체 차량 비중의 40% 이상 확장을 전망합니다.



[50x] 폭증

## 휴머노이드 로봇 디바이스

시각 정보 통합, 실시간 정밀 균형 제어, 외부 자극의 실시간 전신 피드백 등 전방위 고속 처리를 위해 **자율주행차의 10배, 일반 자동차 대비 50배 이상의 초정밀 대용량 메모리** 탑재가 표준으로 제정됩니다.

인사이트: 수십년에 걸친 거대한 메모리 수요 장기 사이클의 새로운 주기가 피지컬 AI로부터 시작

#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적 공급 제약

-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가로막힌 5대 구조적 장벽 분석

## 01. 리드 타임

### 신규 팹(Fab) 장벽

최첨단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에  
기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3~4년이  
필수 소요됩니다.

## 02. 규제 허들

### 복잡한 인허가

글로벌 주요 정부의 보조금 요건  
및 한층 까다로워진 친환경/수자원  
라이선스 획득 지연.

## 03. 기술적 한계

### 미세공정 난이도

초미세 노드 전환 시점마다 기술  
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 
증가하여 비트당 생산성이 크게  
둔화됩니다.

## 04. 인력 부족

### 숙련 기술자 부족

신규 첨단 패키징 라인과 팹을  
유기적으로 운영할 최고급 설계 및  
운영 인력의 만성적 고갈 상태  
지속.

## 05. 전력 한계

### 인프라 절대부족

동시에 가동되는 대규모 AI 전용  
데이터센터들과 고출력 팹 가동을  
감당할 에너지 발전량 포화.

인사이트: 2028년에 전반적 공급 여건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폭발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

# 패러다임 전환: 반도체 산업의 재정의

- 단순 변동성 중심의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구조적 AI 시대로의 체질 전환

| 구분 항목  | 과거 (사이클 시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재 (구조적 AI 시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산업의 지위 | 단순 원자재 (Commodity) 성격으로 상황에 따라 수동적 가격 대응에 그침.       | AI 시대를 주도하는 독점적 핵심 전략 자산 (Strategic Asset)으로 지위 격상.           |
| 계약 구조  | 주로 단기 가격 협상에 기반한 스팟(Spot) 분기 거래 중심으로 수익성 변동 노출.     | 5년 만기의 장기 의무 인수 조항 계약 (Take-or-Pay, SCA) 도입으로 하방 보장 장치 완비.    |
| 가격 방어  | 수요 둔화 및 공급 과잉 발생 시 한계 원가 이하로 즉시 판매 단가가 내려앉는 악순환.    | 최악의 극단적 불황 시나리오가 도래하더라도, 과거 역사적 호황기 이상의 최저 마진 보장.             |
| 수요 다각화 | PC 및 스마트폰 단일 기기 세대의 출하량 추이에 명운이 걸리는 지극히 단조로운 수익 구조. | 빅테크, 소버린 AI 안보 인프라, 엔터프라이즈 자체 클라우드, 자율주행 오토, 로봇 등 5중 다층 축 지탱. |
| 공급 탄력성 | 시장 가격이 반등하면 설비투자가 급격히 물리며 무차별적 대량 증산 단행.            | 건설 지연, 전력 공급 및 부지 고갈, 인력 병목 등 5대 구조적 요인 탓에 물리적 급속 증산 불가능.     |

인사이트: 과거의 변동성 논리에 갇혀있던 반도체 산업은 **구조적으로 완전히 재평가(Re-rating)중**

# 폭발하는 스토리지 수요와 수혜를 받는 핵심기업

- 데이터센터 초고속 스토리지 수요 폭증으로 시작된 낸드(NAND) 플레이어들

## 🔥 촉매제 (The Catalyst)

- 마이크론 NAND 사업부 매출이 전분기 대비 **99%(약 2배)** 폭등하며 놀라운 어닝 쇼를 주도.
- 데이터센터용 초고속 SSD 단일 분기 매출액 사상 최초로 **50억 달러(약 7조 원)** 돌파.
- 거대언어모델(LLM) 추론 및 대규모 실시간 컨텍스트 데이터 실시간 저장을 위해 엄청난 고성능 공간 지속 요구.



### SanDisk (샌디스크)

Pure NAND Player

NAND 비즈니스에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고집하는 대표적 플레이어. 구조적 업사이클 진입 국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가격 탄력성(Beta) 수혜를 향유합니다.

### Western Digital (웨스턴디지털)

Enterprise Storage

기존 하드디스크(HDD) 및 낸드 부문 분사 결정 후 고부가가치 엔터프라이즈 하이엔드 솔루션에 집중. 대규모 콜드 스토리지 전력 최소화 고용량 수요의 실질적 지배 기업.

### Seagate (씨게이트)

Legacy & Next Cloud Storage

글로벌 고용량 하드디스크 시장 지배적 과점 구조의 한 축. 빅테크들의 지속적 차세대 고용량 서버 인프라 구축 연계에 따른 낙수효과로 장기 고마진 체계 확보.

경고: DRAM 및 HBM 영역에 비해서는 전방 단가 변동성이 가파를 수 있으므로, 면밀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상시 권고

# 마이크론의 역설: 빅테크가 감당할 압도적 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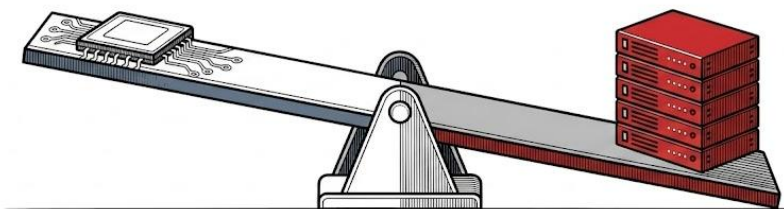
- 공급망 이익 점유 구조가 빅테크플랫폼에서 핵심 하드웨어 인프라 공급처로 빠르게 이동

## 🏆 마이크론의 승리

- 16개 핵심 최상위 독점적 파트너들과 사상 최장기 공급 고정 계약 전격 성사
- 향후 5개년 이상 업계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적 초고마진 확보 가시성 100% 달성
- 시장 변동성 리스크가 완벽히 증발한 확실하고 투명한 실적 추정치 정립

## 💣 빅테크의 침묵하는 공포

- 차세대 메모리 컴포넌트 매입 단가 장기적 폭등 및 고정화 리스크 노출
- 인프라 인공지능 서버 구축 고비용(CapEx)의 무차별적 통제력 급격 상실
-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부르는 게 값인 부품 매입 협상력 고사



인사이트: 비즈니스 본질: 메모리 제조사의 역대급 이익 폭증 이면에는 빅테크들이 감당해야하는 ‘**확정적 비용 청구서**’가 숨겨져 있음

# 애플의 가격 인상 선언이 쏟아올린 공급망 나비효과

- 반도체 부품 단가 상승이 최종 세트 제품 인상과 공급망 타격으로 전이

## STEP 01

### 인프라 비용 부담

핵심 메모리 부품 공급처들의 마진을 확보  
요구에 따라 주요 전방 디램 및 플래시  
가격의 기습 폭등 발생.



## STEP 02

### 세트 기업의 방어

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애플, 레노버 등  
글로벌 OEM 공룡들의 맥(Mac), 아이패드  
등 최종 출고 단가 전격 인상 감행.



## STEP 03

### 시장의 차가운 반응

가파른 소비자 가격 인상 저항에 부딪히며  
태블릿, PC, 플래그십 디바이스 판매  
수량의 눈에 띄는 감소 현상 발발.



## STEP 04

### 생태계 전반 파열

특정 부품의 가격 급등이 기기 출하량  
급감을 초래해 IT 컴포넌트 공급망 전반에  
연쇄 침체를 촉발하는 시스템릭 리스크  
전이.

경고: 극단적 부품 가격 인상 전가는 결국 임계점을 넘어 **하드웨어 생태계 전체의 급격한 수요 둔화**로 반작용 유발 가능

# 월스트리트저널(WSJ)의 경고 : 세 번째 인플레이션 파동이 오고 있다

- AI 가속화가 유발하는 3차 인플레이션

## ★ Wave 1: 팬데믹 충격

### 주요 트리거

코로나19 이동 통제 전면 해제, 글로벌 보복 소비 폭발, 물류 공급선 병목현상 고착화.

### 핵심 특징

범용 소비재 유통 정체와 원자재 선박 운임 비용 위주의 일시적 상승 압박 주도.

## 🌐 Wave 2: 지정학적 위기

### 주요 트리거

호르무즈 해협 무력 충돌 위기 격화, 보호무역주의 기반 주요국 관세 장벽 패권 전쟁 돌입.

### 핵심 특징

원유, 액화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에너지원 및 고부가가치 필수 핵심 광물 유통 단가 급격 자극.

## ⚡ Wave 3: AI 인프라 붐

### 주요 트리거

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과부하에 따른 송배전 인프라 단가 폭증 및 반도체 공정 총비용 가중.

### 핵심 특징

컴퓨팅 연산 확보를 위한 국가급 비용 누적이 경제 생태계 전반의 근원 물가를 구조적으로 밀어 올리는 현상.

인사이트: 고효율 디스플레이를 기대하게 만든 인공지능이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전체의 가장 완고한 물가 상승 동력이 되는 아이러니

## 투자 효율성 검증의 시험대가 온다

“이 모든 천문학적 비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?”

데이터 센터, 고가 메모리, 거시적 인플레이션..  
생태계 전체가 짊어진 막대한 비용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명이 필요하다

“AI.. 그게 돈이 됩니까?”



# AI CapEx Trap: 상하방 껍 막힌 샌드위치 압박

- 고비용 인프라 강요와 수익성 방어력 붕괴 사이에서 신음하는 빅테크 밸류에이션 리스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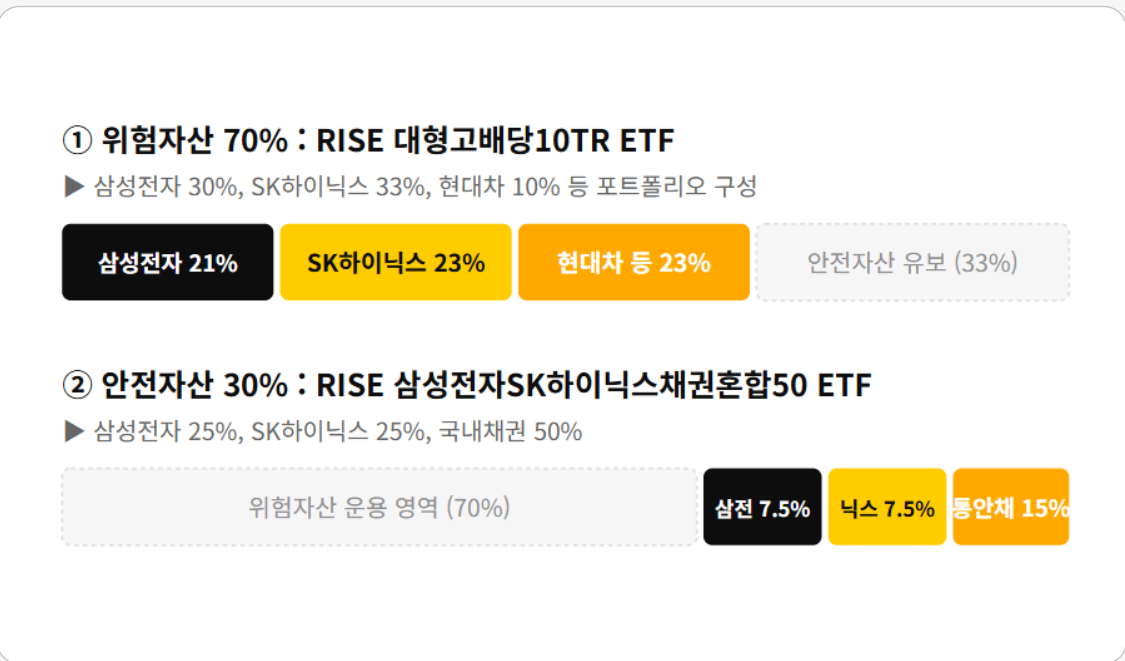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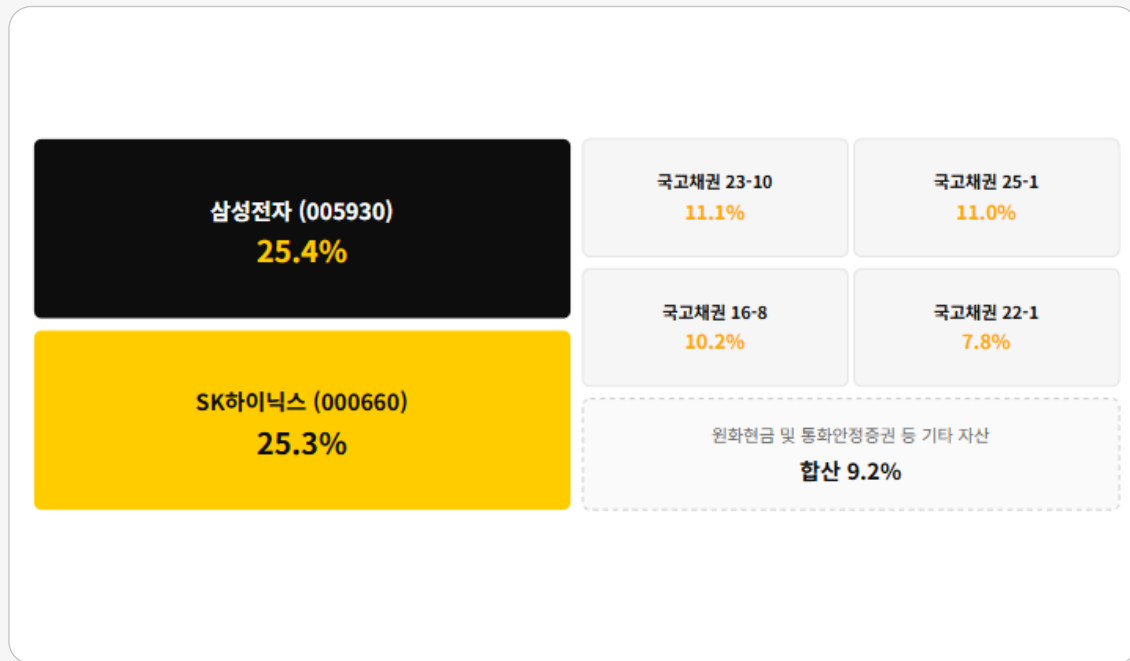
경고: 수익 달러의 비용 지출은 100% 기정사실화 되었으나, 상응하는 신규 상업적 수익 실현 전망은 극단적으로 모호해진 병목구간에 진입

## 추천 RISE ETF: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(0162Z0)

- 퇴직연금 계좌에서 삼성전자·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는 방법
- 안전자산(30%) 내 편입하여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 가능
- 총보수 연 0.01%의 저비용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

PDF (2026.06.25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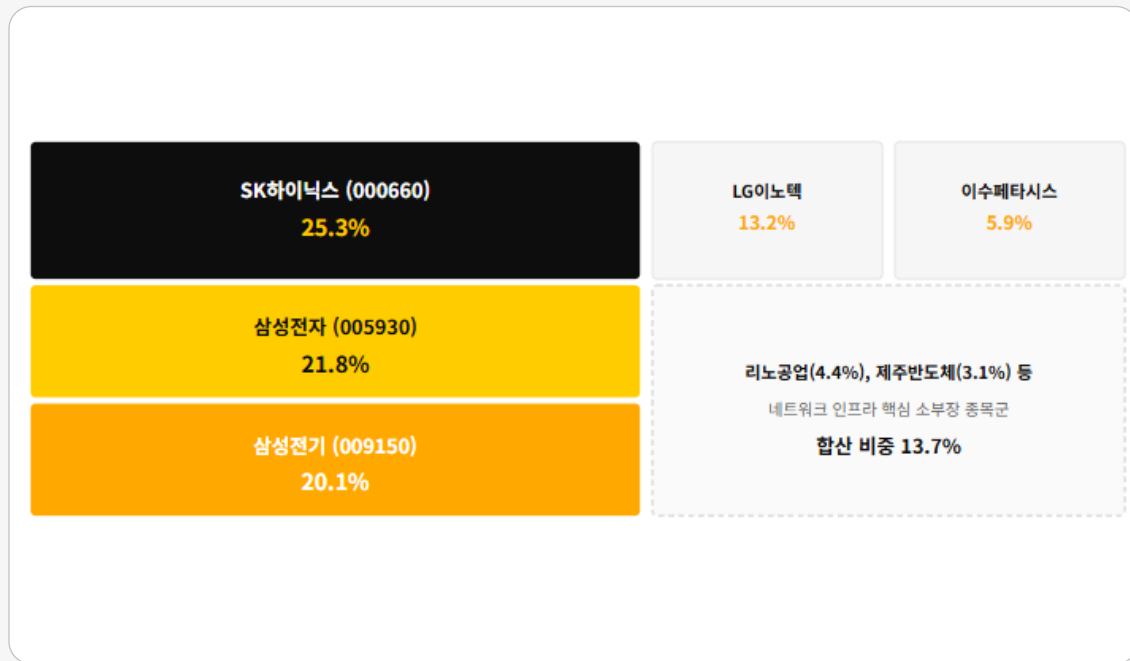
연금계좌에 삼성전자/SK하이닉스 15% 추가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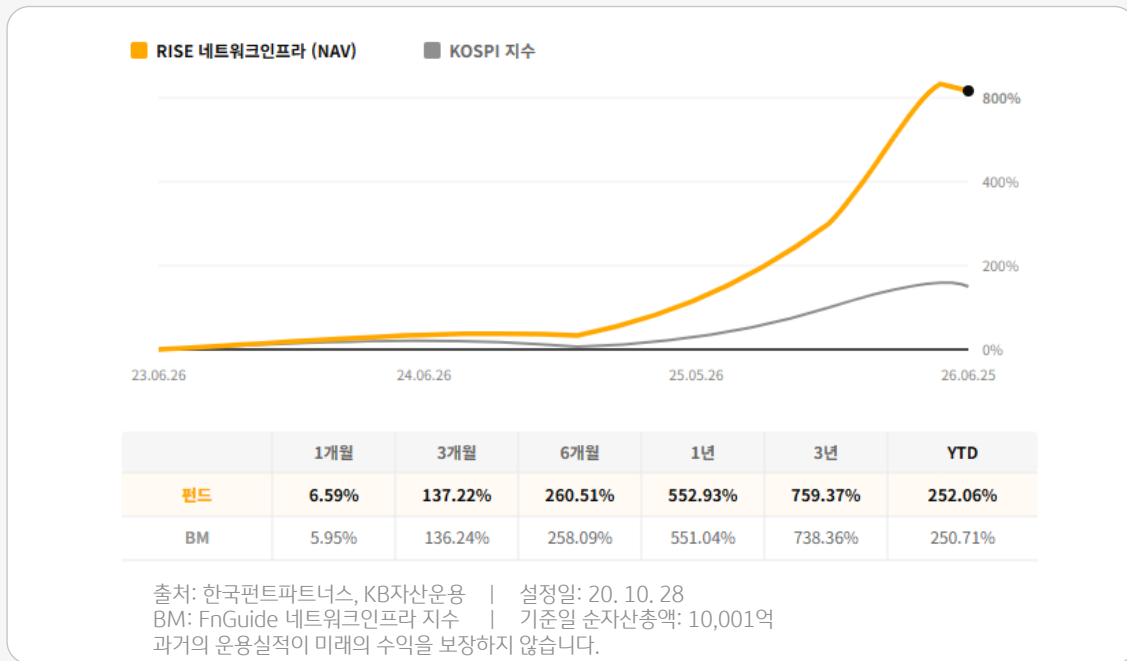
## 추천 ETF: RISE 네트워크인프라(367760)

- AI가 생성한 방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통신, 네트워크 장비 기업에 투자
- AI 트래픽 폭증의 직접 수혜, 광케이블과 스위치, 라우터 핵심기업에 집중 투자

### PDF (2026.06.25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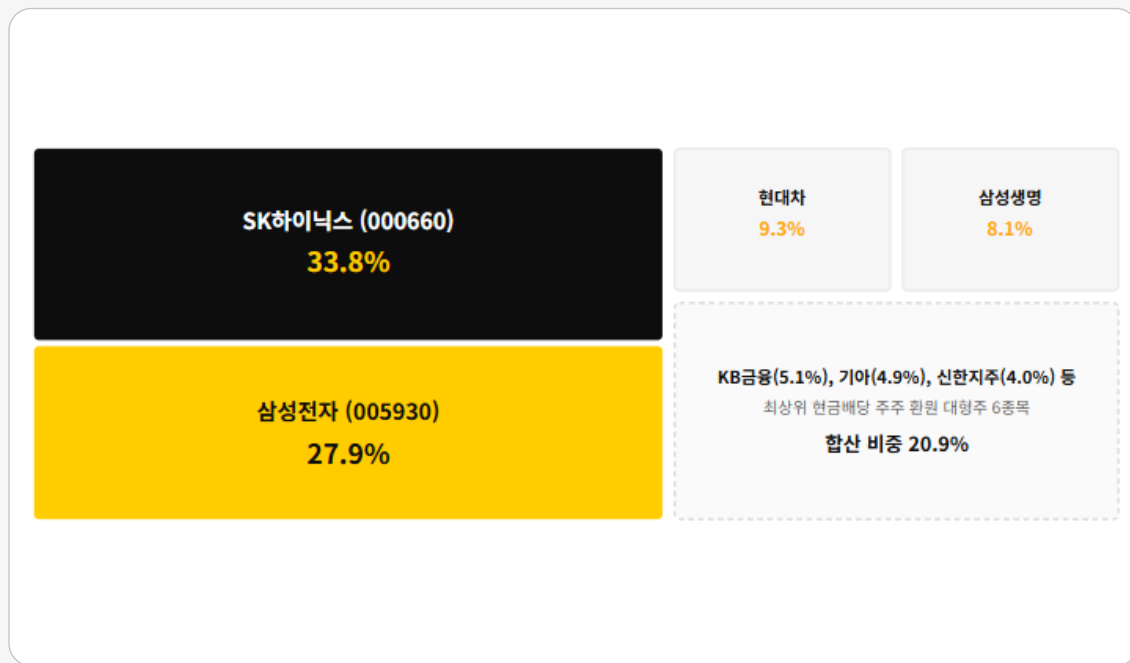
### 수익률 (2026.06.25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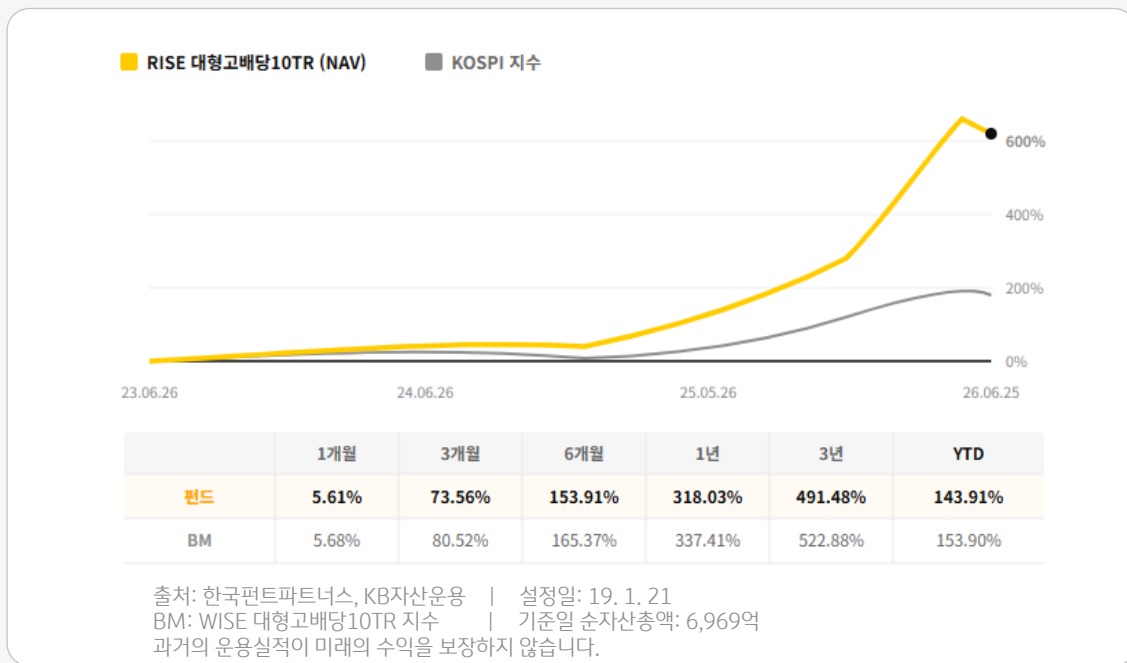
## 추천 ETF: RISE 대형고배당10TR(315960)

-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현금배당 최상위 10종목 선별 투자
- TR(분배금 전액 재투자) 방식으로 복리효과 극대화

### PDF (2026.06.25기준)



### 수익률 (2026.06.25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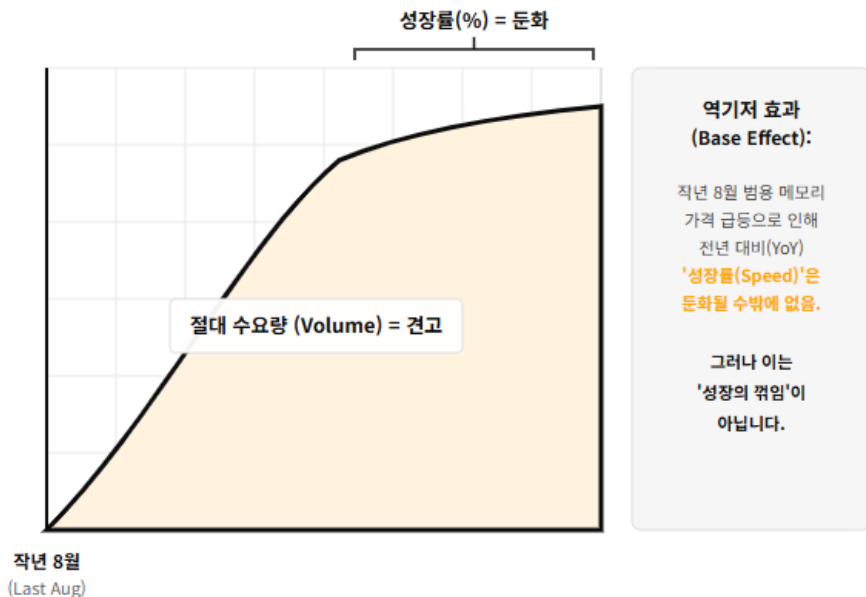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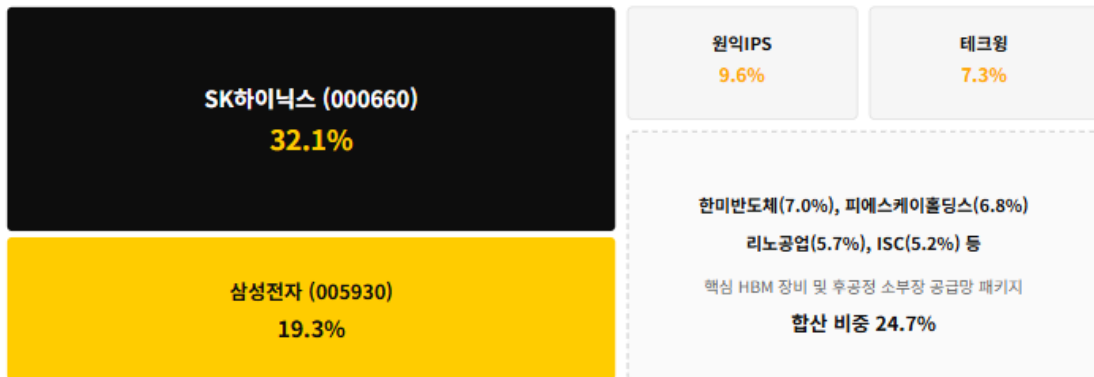


## 추천 ETF: RISE AI반도체TOP10 (0093A0)

- AI 수요 폭증의 직접 수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(30%) 및 핵심 소부장까지 투자
- K-반도체 밸류체인 10종목에 집중투자
- 반도체 사이클 어느 단계에서도 수혜 기대 포지션 유지

PDF (2026.06.25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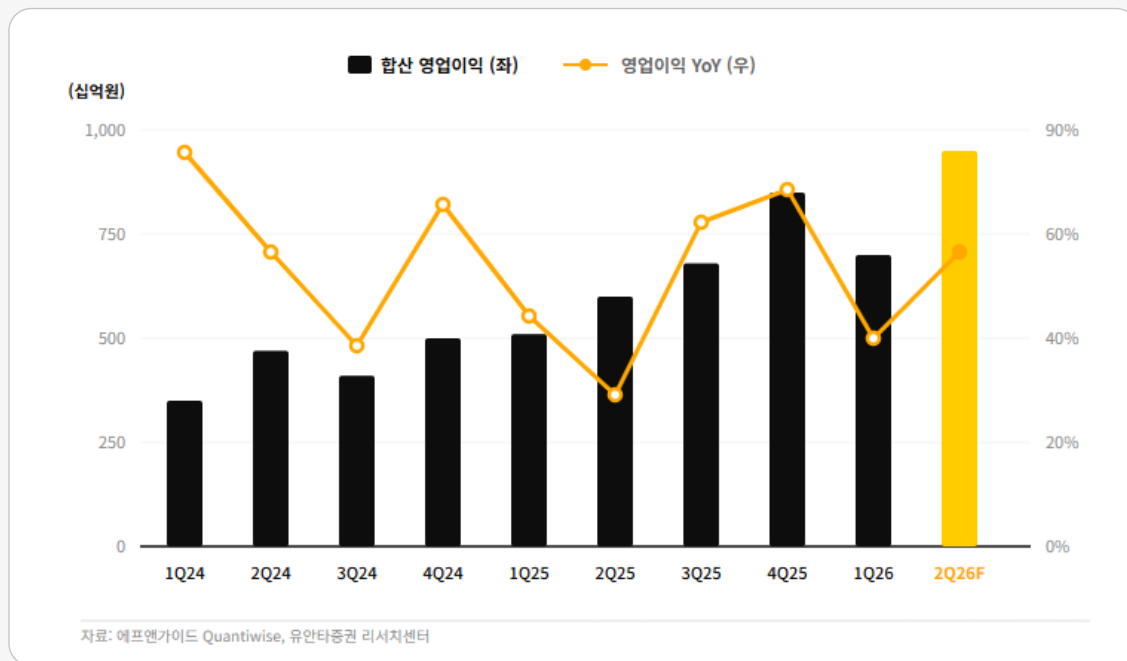
8월 성장률 둔화? Q사이클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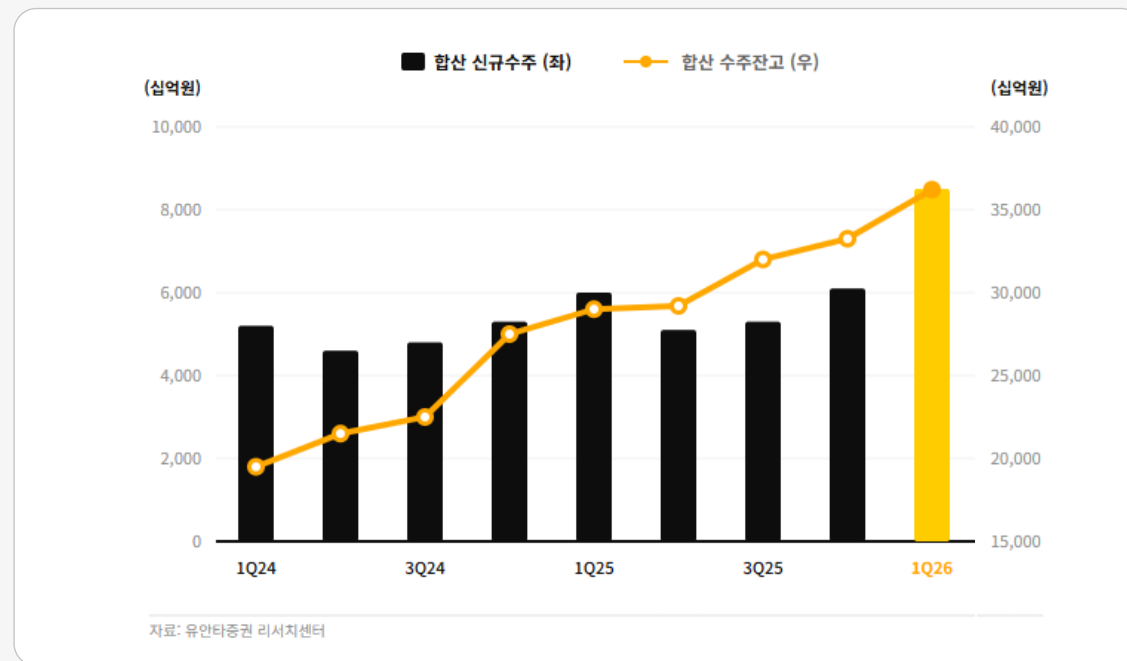
# 전력기기, 조정은 끝이 아니라 기회

- 주가 조정은 '피크아웃'이 아닌 AI 테마 내 '수급 로테이션' 결과
- 빅테크 CapEx 상향이 '실제 전력 인프라 발주'로 연결 확정
- 수주 및 이익(EPS) 가이드언스의 '추가 상향 리레이팅' 구간 진입

## 전력기기 6개사 합산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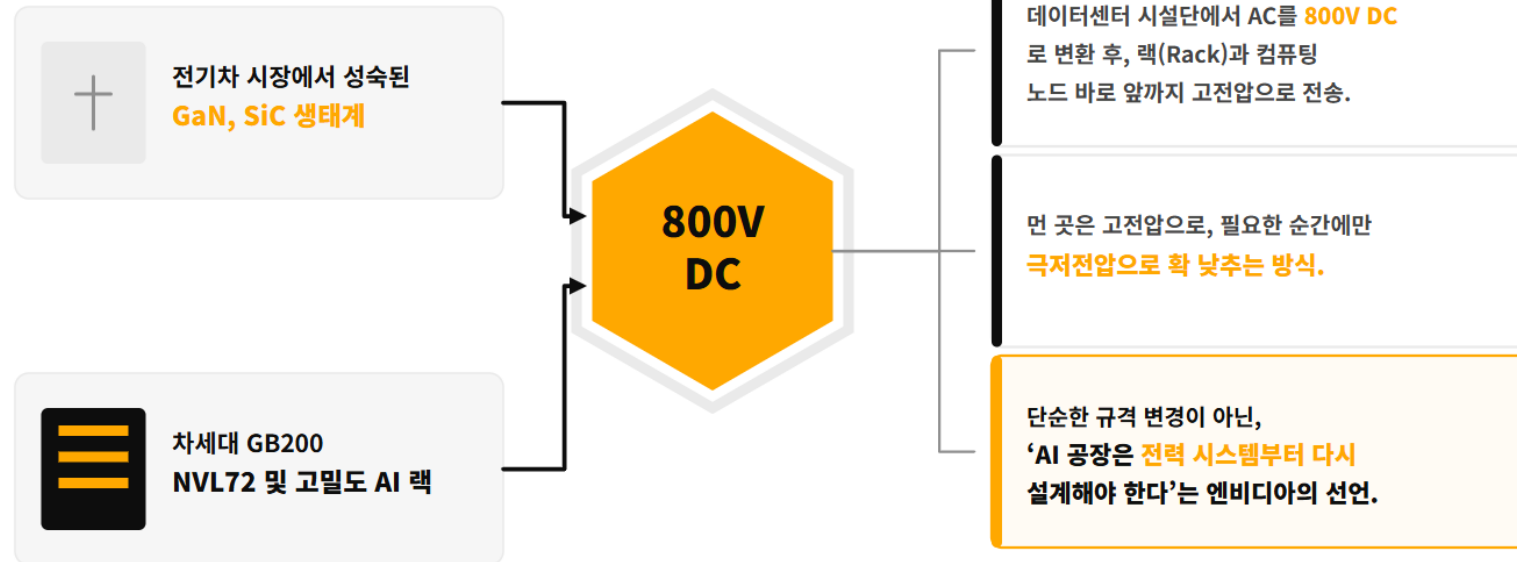


## 전력기기 6개사 수주잔고 추이



# 카이버 랙 : 800V DC

## 엔비디아의 해법: 800V DC 아키텍처 도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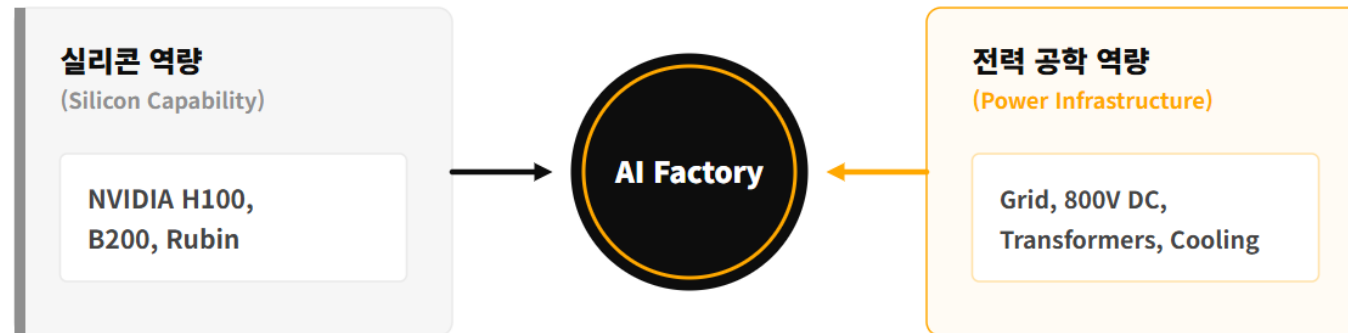
# 카이버 랙 : 800V DC

## 아키텍처 패러다임 비교: 54V vs 800V DC

| 구분       | Legacy 54V 아키텍처 | Next-Gen 800V DC 아키텍처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핵심 철학    | 랙 내부에서 다단계 강화   | GPU 직전까지 고전압 유지         |
| 전류 부하    | 극심함 (Extreme)   | 대폭 감소 (Minimal)         |
| 전력 손실률   | 높음 (발열 심화)      | 매우 낮음 (효율 극대화)          |
| 랙 공간 효율  | 전력 부품이 공간 과점    | 중간 변환 단계 생략으로 밀도 증가     |
| 주요 기술 장벽 | 물리적 구리 한계 및 냉각  | 고전압 DC 아크(Arc) 제어 및 안전성 |

# 카이버 랙 : 800V DC

## AI 확장을 위한 두 명의 문지기 (The Two Gatekeepers)



GPU 칩의 성능(엔비디아)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 역량.  
둘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AI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다.

# 카이버 랙 : 800V DC

## AI 산업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

과거의 렌즈 (기존 AI 기술어)

~~HBM~~   ~~CUDA~~  
~~NVLink~~   ~~H100~~



새롭게 부상하는 본질 (전력 인프라 지표)

**변압기** (Transformers)

**차단기** (Switchgears)

**전력 반도체** (Power ICs)

**800V DC**

**ESS**

**냉각** (Cool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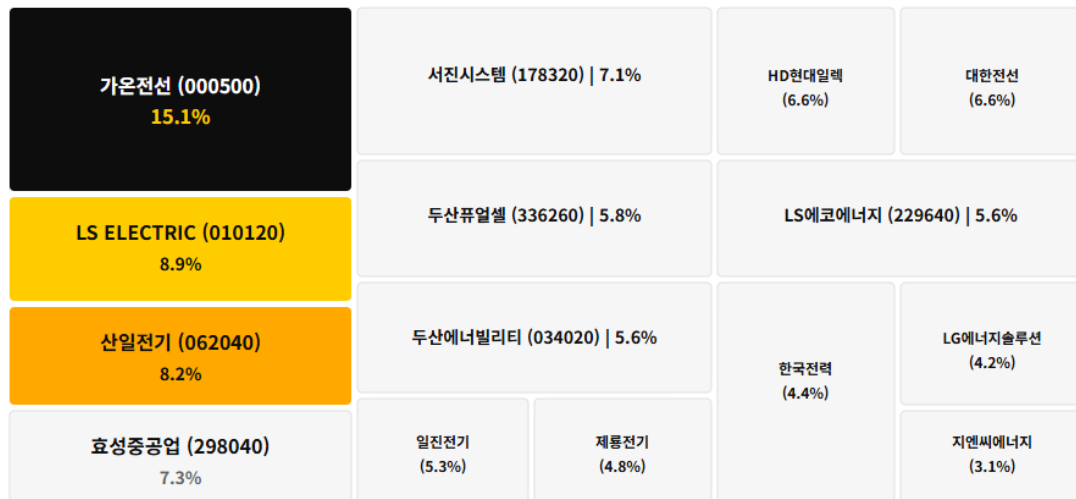
과거의 렌즈(칩의 이름)로만 AI 인프라를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다.

진정한 AI 경쟁력은 칩 내부의 아키텍처를 넘어, **데이터센터 밖의 전력 공학(Power Engineering)**을 얼마나 정밀하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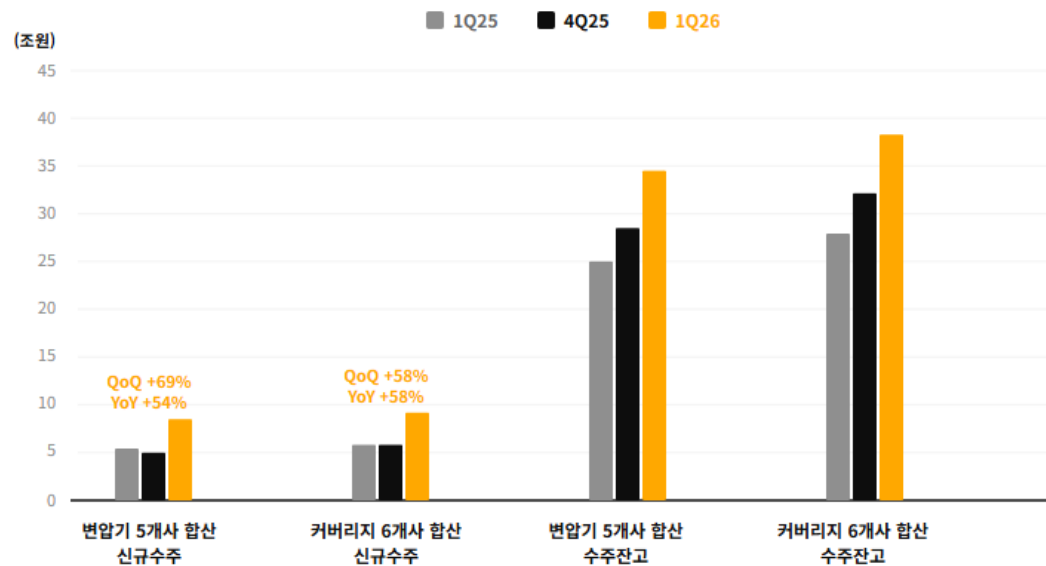
## 추천 ETF: RISE AI전력인프라 (0101N0)

- AI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관련 국내 핵심기업에 투자하는 ETF
- 2030년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'3배 성장 전망'
- 전력 운송 설비(송·배전) 외에 전력 발전(원자력), 에너지저장장치(ESS)까지 포함한 AI 전력인프라 전반에 투자

### PDF (2026.06.25기준)



### 전력기기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증감률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\*KB RISE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채권혼합 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혼합) | 위험등급: 4등급 (보통 위험) | 총보수 연 0.01%(운용회사: 0.001%, 지정참가: 0.001%, 사무관리보수: 0.003%, 수탁보수: 0.005%)

\*KB RISE 대형 고배당10 Total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 |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 | 합성총보수 연 0.131%(운용회사: 0.049%, 지정참가: 0.001%, 사무관리보수: 0.01%, 수탁보수: 0.01%, 기타비용 0.061%), 2025년 증권거래비용 연 0.025%

\*KB RISE 네트워크인프라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| 위험등급: 1등급 (매우 높은 위험) | 합성총보수 연 0.516%(운용회사: 0.400%, 지정참가: 0.010%, 사무관리보수: 0.030%, 수탁보수: 0.020%, 기타비용 0.066%), 2025년 증권거래비용 연 0.015%

\*KB RISE AI반도체TOP1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|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 | 합성총보수 연 0.200%(운용회사: 0.159%, 지정참가: 0.001%, 사무관리보수: 0.020%, 수탁보수: 0.020%, 기타비용 0.065%), 2025년 증권거래비용 연 0.024%

\*KB RISE AI전력인프라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|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 | 합성총보수 연 0.200%(운용회사: 0.159%, 지정참가: 0.001%, 사무관리보수: 0.020%, 수탁보수: 0.020%, 기타비용 0.074%), 2025년 증권거래비용 연 0.010%
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합성총보수 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
- ETF 거래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사오니 거래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과세 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재무실적 및 영업실적 등의 수치는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상장 1년 미만의 상품은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재하지 않았으나, 운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광고물은 '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' 온라인 투자 광고 심사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투자광고를 유지합니다
-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'투자광고 2026\_1107(다)' (2026.06.29 ~ 2027.06.28)



 KB 자산운용 Rise<sup>ETF</sup>

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